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메세지

'94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으며 청교도 정신으로 신천신지를 바라고 나가자

- 사랑과 섬김과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절, 서울 교회 설립 3주년,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은 구약 성경의 유래를 따르기보다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Puritan)들의 전통을 따라 해마다 11월 넷번째 목요일이 지난 오늘을 택합니다.

지금부터 374년전인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May flower)라는 180톤짜리 범선을 타고 미지의 땅 미국을 향해 출발하여 두달만에, 정확히 62일만에 북미 대륙 플리머스(Plymouth)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하기 위해 공동의 집(Common House)를 지어 이듬해 1월 9일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한 지 닷새만인 1월 14일 새벽 6시, 불행하게도 지붕에 불이 붙어 집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충격과 실의에 빠져 타버린 지붕의 잣더미 위에서 때마침 불어오는 강풍과 비를 맞으며 눈물의 찬송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들어 죽은 자의 수가 46명이나 되었습니다. 인디언의 추적이 두려워 봉분없는 평토장을 해야 했습니다. 추위를 견뎌내고 병에서 회복한 51명이 첫 감사절을 지키며 통곡 대신 노래를, 좌절 대신 춤을 추었던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 해 3월 25일, 타고 왔던 배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함께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인하게 했을까요? 청교도 정신(Puritanism)입니다. 그러면 개척자들의 근본이 되었던 청교도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것이 청교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믿었습니다. 영어로 Vocation. 그것은 생업이면서 동시에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은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 일에 충실하며, 단순히 생활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하



이종윤 목사

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버림받은 증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근검절약하는 것을 생활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빈곤을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애써 일하지 않고 신용이 없으며 낭비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눈물과 비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던 서울교회의 시작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사선(死線)을 넘어와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온 청교도들과 비견해 봅니다. 이제 우리도 청교도 정신으로 신천 신지를 바라보

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청교도 정신의 일환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요13:34 - 35).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으며 편견을 무너뜨리고 원수까지도 용납할 만큼 폭넓은 사랑을 힘써 연습하고, 그사랑을 드러내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갈5:13). 사랑하면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주님을 본받아 형제를 섬기되 민족의 짐과 이웃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실력과 겸손함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요17:17).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며 바른 신앙고백을 하면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 위에 친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신 교회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일입니다.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기념일을 맞아 청교도들의 정신을 0우리의 것으로 체득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와 각오를 새롭게 해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도적인 신앙고백 안에서 세계를 교구로 삼아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밖에서 본 서울교회

● 축하와 바람 ●

강한 자의 부드러움으로 더욱 발전해 가길...

김호식(예담교회 목사)

서울교회 설립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새 교회를 시작한 저로서는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설립 3주년이라고요? '서울교회'같은 대교회를 누가 설립 3주년이라고 믿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이종운 목사님의 지도력과 희생에 힘입은 것이며, 성도님들의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열의 결과라고 봅니다. 과연 "그 회중은 회중 수준만한 목회자를 모신다" 또는 "그 목회자는 그 목회자 수준만한 교회를 만드다"는 말을 입증한 셈입니다.

교단에 가입할 때에도 순조롭게 가입할 수 있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교단 선택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때 이 목사님께서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셨지만, 사뭇귀정. 오늘의 서울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아니다!"를 강한 어조로 반증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잊지는 말아라 그러나 용서하라"는 격언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강자는 부드러운 법. 지금 생각하면 엑소더스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의 기수되어 선교할 수 있기를 ...

서정운(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먼저 설립 3주년을 축하합니다. 교회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밖에서 본 서울교회를 몇가지로 말해 보려 합니다.

우선, 서울교회는 처음부터 대형교회로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하는 교회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국내 목회자들의 신학적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맡아 열심히 일해 온 서울교회가 3주년을 맞이함을 축하하면서, 성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당부한다면, 서울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노회나 교단과의 연합의 사역에 기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교지원들이 효과적으로 결실하며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사용하며 사역하는 교회로 더욱 성숙하고 부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대의 향도적인 교회로 ...

정경화(백둔교회 목사, 목회자세미나 동문회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지상교회가 말씀과 고백과는 엄청나게 다른 길을 가고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의 그루터기되어 소망의 햇불과 같이 나타난 서울교회를 나는 본다.

불과 서울교회가 그 이름을 이땅에 허락받은 지 3년, 그런데 서울교회가 우리 앞에 제시한 모습은 너무나 경이롭다,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 교회갱신연구원을 설립하고 흠어졌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갱신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종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면서 초교파적 온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참 뜻임을 알고 교회가 첫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서울교회는 그것을 하였던 것이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몸소 보여 준 것은 그 행사 뿐이 아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온 교회성도들의 봉사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한 주차장의 마련과 주차관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사님의 얼굴에서, 현관안내와 승강기안내, 접수와 차접대, 김밥준비와 김치공급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소홀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단정한 모습과 밝고 명랑한 얼굴에서 천사들의 봉사를 보는듯 하였다. 시작할 때는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하였더니 3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을 뿐더러 그 정성이 더욱 더하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은 사람이 보기에든 기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세미나가 3년째 날로 성황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이 성경연구와 이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회묵한 교회의 일치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체험하게 되게 하여주신 것을 감사한다. 더욱이 95년도 사업으로 한 다락방이 하나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기성교회들이 보고 가성하여야 될 지표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더욱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어 이 시대를 향도하는 교회로 서울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안에서 본 서울교회

교회에 분부하신
주님의 사역을
겸손함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길

교회 한 모퉁이에 서서

정병무 (장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이 세상에는 하루를 예측할 수 없고, 근래에는 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깜짝놀랄 일들이 우리곁을 스쳐간다.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선민들이 아닌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이다. 지난 3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굵은 획을 그어야만 했던 한 때가 지나갔다. 가슴을 메이게 하고,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픔도 참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올부짓는 중에 그 뜻을 따라 '서울장로교회'라는 제단을 쌓고, 여기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삼아 91년 11월 24일 주일에 성스러운 창립예배를 드렸다. 어언 3주년이라고 생각하니 이 세상의 시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안개"에 비유하신 주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새로와진다.

선두에 이종윤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두 분 부목사님과 두 분 여전도사님을 부교역자로 세우시고 일곱분 장로님들로 하여금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을 분담케 하심으로 서울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눈물과 감격으로 얼룩진 옷자락을 끌어안고 간구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인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우님들이 헌신봉사로 드디어 서울장로교회는, 세상에 우뚝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증거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 접근할 수 없음을 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에 이르렀다.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삼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창립 첫 해부터 초교파적으로 교회갱신운동의 중추적 사업인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난주로 제 6하기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생각할 때 또 한 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라 믿고 감사드릴 뿐이다. 학기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목회자님들을 달려오게 하

시어 연인원 5,000명에 등록하게 해주심도 아버지의 뜻임을 믿는다. 또한 세계를 향한 시대적 사명으로 선교운동을 전개하는 김치(KIMCHI) 세미나는 불모지에는 복음을 심어 주고, 취약지역에는 활력을 심어주며, 땅끝까지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인도권, 아프리카권, 러시아권의 목회자 재교육을 통하여, 현지사역자를 교육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제단을 이토록 주님의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제한된 지면에 어찌 그 크신 사랑과 감사를 다 쓰리요만 우리 서울교회의 한가족 한 마음의 형제자매들, 저마다 모퉁이의 돌이 되고자 헌신봉사에 앞을 다투며, 목회 이념을 따라 일시분란하게 쫓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마치 하늘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순종을 실천하는 모습에 나 자신이 부끄러운 따름이다. 앞서가는 차를 따라가는 질서, 신호를 지켜야 하는 규범 등을 무시한다면 급기야는 추돌이나 충돌의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요, 질서와 규범을 문란케 함으로 주변을 혼잡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듯이, 우리 성숙된 서울제단의 교우들은, 입으로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는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굴러가듯, 우리 서울교회도 그 역사 속에 함께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 주님의 섭리라 믿고, 오직 말씀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충성을 다할 것을, 우리 함께 또 한 번 다짐해보자.

크신 뜻을 따라 오늘은 특히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이자 제 2대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뜻깊은 행사와 아울러 추수감사주일로 지치게 됨을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움을 받은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선한 정치기의 표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서울제단이 저들로 인하여 복을 받고 부흥되어, 기뻐하심을 돌려드릴 것으로 믿는다. 우리 모두가 뜻대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위에, 이 나라위에, 이 땅끝까지 위에 임할 것을 믿으며, 영원하신 그의 나라도, 예정하신 그의 큰 뜻도 어김없이 이루어 나갈 것이라 믿는다. 다만 불충하기 짝이 없고 목이 끈기 이룰데 없는 자신을 돌아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며 아버지의 긍휼만을 바라고 의지할 뿐이다.

임 옥 (목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교회창립 3주년을 경축한다. 단시일 내에 대교회를 이루게 된 드문 예의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옛날부터 교회가 개척되거나 분립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까닭에 반드시 섭리하셔서 전도에 진보가 되게 하시고 교세를 성장시켜 당신의 교회를 확장시키셨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교세 부흥도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서울 교회가 크게 왕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말씀에 든든히 선 교회라는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지 못하고 따라서 많은 신자들의 복음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로 기복신앙 아니면 신비주의에 치우치게 되고 아니면 친교나 사회적인 다른 친교에 치중하는 교회로 전라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서 서울교회는 말씀을 따라 가려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새로 개척된 교회로 열심을 다하여 온 뜻을 모아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보겠다는 결의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교회 봉사의 그 정열이 시종일관 계속되길 바란다.

다음은 교육과 선교 봉사에 크게 헌신하고 있다는 이미지이다.

끝으로, 교회에 분부하신 사역이 무엇임을 전체 교회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성삼위 신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 사역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 민족 사회 전 분야에 파송하여 그 지력을 형성하게 하는 사역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교회, 의와 사랑의 교회 되기를!



안에서 본 서울교회

● 큰 사랑, 받은 은혜, 넘치는 감사 ●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이여라

최 난 수 (권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운데 이땅에 서울교회를 세워주시고 민족교회를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국내외적으로 김치세미나,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해마다 실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학부 학생들, 청년부원들,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대견하고 마음 든든하고 이들이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서 서울교회에 앞날은 참으로 밝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만3년되는 서울교회, 참으로 개척교회다운 아름다운 광경을 여기 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경조사가 있을 때는 온 성도님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병자가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하고 심방하여 위로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세미나가 이는 월요일이면 동이 트기 전에 어두컴컴한 교회 옥상에서는 권사님들의 두런 두런 이야기 하는 소리, 사각사각 야채 다듬는 소리, 쇠썰물 나오는 소리, 물에 씻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목회자세미나를 6학기째 치루면서 이제는 우리 권사님이 김밥 마는데는 숙련공이 다 되어서 10시경이 되면 600여 개에 김밥이 거뜬히 되어집니다.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치세미나에 참석했던 외국 목사님들도 응수한 대접을 받고 치밀한 계획 하에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감탄하고 은혜충만해 돌아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적으로 놓여준 전도와 삼척에서의 여름 수양회 호혜작전 등 대내적인 행사도 계획한대로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3년동안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서로서로 사랑하므로 화합한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3년이 지나 헤이해지기 쉬운 4년, 5년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온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첫 사랑에 뜨거움과 그 뭉침이 더욱 새로

와져야만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겠습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므로 화합이 있어야겠습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의논하실 때에 말씀에 조명을 받아 세상적으로 흘러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귀한 마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권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어서 기도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여 온성도님들 앞에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젊은 집사들은 더욱 뜨겁게 몸뚱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야겠습니다. 가정에는 형통함으로 근심걱정거리없이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다 되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 권태감을 모르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두손모아 축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님 뜻 이루는 교회되길

김 영 준 (집사)

3년 전, 공평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예비하신 논현동 성전에서 무릎이 깨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순교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던 일들이 엇그제 같은데 어언 설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부흥발전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무릎꿇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며, 흠어지면 전도하고 유무상통하는 모습이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았습니다.

감할 수 없는 성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무언으로 다짐하는 눈길들이었고 열심들이었습니다. 성령충만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굶은 일하기를 마다않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말씀 앞에 열심과 감사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세포가 되는 많은 기관들을 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천국일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구제를 앞장 서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며 성숙해져야 되

는 매일 것 같습니다.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 나라 전파에 두시고 주님도 부단히 열 두 제자를 훈련 시키셨는데 전국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세미나 등으로 우리교회를 통하여 사역하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식지 않은 열심으로 최선을 다 하여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복음에 빛진 자로서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그 어느 아름다움에도 비길 수가 없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나와, 교회에 배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낱알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짐하여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불감증이 걸린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영적 불감증을 치료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덕을 세울지언정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열심을 쉬게하며 결국 울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은 감출 방법이 없다는 말처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힘들 때가 있더라도,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더라도 쉬지않는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면전에서’ 믿음으로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서로 화평을 위한 중보자가 됩시다. 시기, 질투, 나만을 주장하는 편협된 고집은 가졌던 신앙마저 잃어 버리게 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4주년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이다’라는 겸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중 “내가 여호와를 생각 하였삼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 때 특별히 성전 건축을 기원하는 다윗의 기도(대상 29: 10-19)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시며 우리의 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하길 원하시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기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생활을 하여야 하리라고 다짐해 봅니다.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김 남 순 (집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공을
 향이니라"(고전 15:52).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이 말씀이 새삼 생각나는 것은 모든 면에 열심을 품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삶의 전 영역에서 주를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기회를 선용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 열심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는 교회, 이 또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울러 점점 다양하고 전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성에 맞게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모든 성도가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 이것도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한 모퉁이의 모습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갱신 운동을 펴는 것은 물론 김치(KIMCHI) 세미나를 통해 아프리카 오지는 물론 러시아의 복음화, 얼어붙은 북한땅의 복음화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진취적인 교회등 서울교회의 모습은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충실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흥해작전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비롯 전도의 사명을 감당키 위한 비전 2000 운동 등 쉬지않고 일하며 땀 흘리는 모습 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행하는 가운데 자기만족(?)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성도간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한사람의 새신자가 정말 따듯함을 느끼고 스스로 녹아지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이웃사랑하기를 내뿜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의 상을 만

들어 가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서울의 서울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서울교회, 아니 세계 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서울교회가 되기 위해서...

감사, 감사, 감사

김 형 택 (집사)

시골 누님네 과수원에서 붉게 익은 사과를 보노라면 내외분의 땀방울의 보람이 실감나고, 아내, 겨울의 말랐던 등걸에서 어떻게 잎이 나고 저런 과일이 열렸는지, 그 섭리가 신비하다. 벌레먹은 사과쪽도 그지없이 소중한다.

꿈을 가꾸는 나의 작은 동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아래 넝쿨 위로 하늘을 보노라면, 생명의 푸르름과 바람의 맑음 속에서 창조주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진다. 낮빛의 끝시각까지 지치도록 땀을 쏟고나서 젖은 몸을 벗어던지고 흐르는 물고랑(**)에 몸을 씻노라면, 내게 좋아하는 일과 티를 주신 고마움으로 새로 힘이 솟는다. 돌아오는 차창으로 등실 떠오르는 달과 더불어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

(남한강 줄기 곳곳에 펼쳐진 돌밭을 보며 밟으며 기뻐하고, 혹 가까이 벗하고 싶은 돌을 만나면 불려보는 찬양은 얼마나 가슴 시원한가! 멀리 동네어구의 정자나무와, 길따라 멋대로 늘어선 소나무를 즐기는 눈을 또한 감사한다).

외형적 제약에서 벗어나 나의 시간을 내것으로 쓸 수 있고, 남의 것 내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대로 나의 것 일으키는 자유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의와 진실이 숨죽이던 정복 정권이 시대와 더불어 끓어오르던 울분의 어휘. 낯선 비판의 언어들을 삭히고, 이제 재주부리지 않아도 되는 부드러운 말, 상식으로 젊은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 주심을 감사한다.

여러 달 목사 찾아 해배던 중, 1992년 11월 세계 주일, 서울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가, 그날로 등록하고, 바로 다음주일 추수감사절 찬양예배에 동참하게 되었다. 두 해가 지난 지금, 그 날 우리 부부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깊이 감사한다. 때로는 지혜로, 때론 채찍으로 폐부를 혼드는 말씀 말씀에 숙연해지고, 겸손, 온화한 인품을 배운다. 배식 당면 장로님들의 앞치마가 친근하고 우쭐대지 않고, 편 가르지 않고, 수근거리지 않고, 소리 높이지 않는 것을 배운다. 내부 축적에 힘쓰지 않고, 소금맛과 빛을

배풀기에 힘쓰는, 이런 교회다운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님을 닮으려 걸음마를 떤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거들 들판도, 쌓을 곳간도 없는 도시화 사회에서 추수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어깃장이 수그러드는 것이 감사하다.

좋아하는 일을 좇으니, 힘겨워도 즐겁고, 집에 들면 안온하고, 내가 속한 나라가 진실을 향하였고, 내가 속한 교회가 내 영혼을 푸른 초장에서 좋은 풀로 먹이니 어찌 감사의 찬양을 아낄까보나!

서울교회 가족됨을 감사

오 승 민 (새가족부)

영광스런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신실한 목자의 이끌림을 받고 훌륭한 동행자와의 만남은 큰 축복이요 은혜라 생각합니다.

서울교회는 하나님중심, 교회중심, 말씀중심의 삶의 원리를 바로 지킬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교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중심의 신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부지중에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고쳐주시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회의 비전이 뚜렷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통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니 안디옥교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시려고 애쓰시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나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세속화되어 버린 나의 신앙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배마다 강해설교를 통하여 성경말씀의 운동력에 힘입어 변화되고,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대언자로서 영적상황에 늘 적절한 말씀으로 힘주십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많은 사랑의 빛을 지며 경험하였듯이 주님께로부터 믿음의 담력과 아름다운 지위를 받으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충만함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헌신봉사하시는 그 모습에서 다시금 크신 권능으로 서울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오셨으며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영광을 받으실지 너무도 궁금한 가운데 오늘도 서울교회로 향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난 1994년



예배와 성례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최고의 정성과 최선을 다해 드린다. 신년예배와 부활절, 맥추감사절 등의 절기 예배 때마다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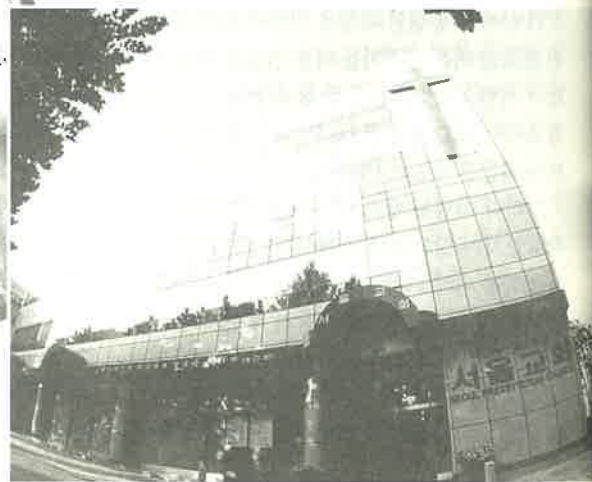
우리 교회 내의 학습, 세례식 뿐만 아니라 육사와 논산 훈련소 등을 찾아가 진중 세례식을 베풀기도 했다.

<사랑의 큰 잔치> 때에는 사랑부 학생들의 세례식도 있었다.



예배당 이전

5월 1일 현재의 예배당으로 이전해 오면서 서울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러시아 목회자 초청
제 5차 김치 신학세미나와
러시아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회

94 흥해작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주제로 6월 6일부터 두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청지기 훈련

한마음 축제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삼척에서의 전교인가족수련회



■축시

일천구백 구십 사년

신동

부서진 날개
홍건히 고여있는 생명의 흔적은
눈부신 순결한
죽음이여라

목마른 땅은 통곡하며
예 아니오가
가책없이 혼돈된 밤
삭발한 머리는
텅 빈 빌라도의 뜰에 내 던져진
기적같은 진실이여라

상체기 난 하늘과 땅을 끌어안고
부끄럼없이 펴붓는
사랑의 들끓음
오늘도

교사체육대회
(성북구민회관에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하여 (5, 6학기 목회자세미나)



시국을 염려하며, 한국교계 원로목사 간담회



비전 2000운동,
농어촌 전도,
70인전도대 등
기도와
전도의 운동들



십월 스므 이레

자, 중등부 교사)

물로 데워지는 벌거벗은 새벽은
상한 무릎 위에
오의 빛처럼 걸려 있어라

백구백구십사년 십일월 스므 이레
영을 떠담은 환희의 날
의 오장육보를 다해
하는 날
의 뜨거운 체온으로만
는 너 행복자
을>이여!

상 끝날까지
이안 신부되어
으로만
가는 영광 영광...

목회자세미나 현장 스케치
11월 21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토인비와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

강사 / 이 원 설 박사 (전 한남대 총장)

토인비(A. J. Toynbee)는 20세기 최대의 역사가이자 문명비평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지상에 꽃피웠던 모든 문명을 대상으로 28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거시적인 비교 연구를 행하고 온갖 문명들간의 도전과 응전에 따르는 흥망의 원인을 영국적인 실험정신을 가지고 해명하여 <역사의 한 연구 (A Study of History)>를 완성하였다.

1. 토인비가 영향을 받은 것들

토인비가 이러한 역작을 남길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피는 것은 그의 역사관 및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그가 출생한 서구의 기독교적 사관의 영향 - 서구의 사상은 기독교적 사관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독교적인 사관에 영향을 받은 토인비의 역사관은 그 시작을 성경이 말하는 태초에서 기원을 찾고 있고,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 간다는 성경의 목적적이고 선적(線的)인 역사개념에 기초했다.

② 가계의 영향 - 그의 숙부인 토인비(1850 ~ 1881)는 17C의 위대한 변혁을 '산업혁명'이라고 최초로 명명한 영향력있는 역사가 였으며, 그의 어머니 역시 뛰어난 역사가였다.

③ 시대적 배경의 영향 - 1914년의 세계대전은 과학기술을 통해 유포아가 도래할 것으로 여기던 그때까지의 낙관적 사관과 "역사는 미개로부터 문화, 문명한 세계로 진보해 간다"는 진보사관을 붕괴시켰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있기까지는 그 외에도 두 역사가로부터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토인비는 슈펜글러의 <역사의 연구>와 다니레프스키의 사관을 접하고 문명의 친자관계와 조부 - 부 - 자 - 손자 관계와 같은 세대론, 문명체를 정신의 표상이라고 보는 견해, 동시대성, 문명의 단위 개념 등을 정립할 수 있었다.

2. 토인비 학설의 특징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 나타난 주요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명의 순환 - 문명의 패턴은 탄생 - 성장 - 쇠퇴 - 해체 - 소멸의 단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슈펜글러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지만 슈펜글러의 선형적이고 운명론적인 사고와는 달리 토인비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경험적으로 서술하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활용하면 운명론적인 순환을 극복하고 역사는 부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단위 문명간의 상호교류 - 다니레프스키처럼 토인비도 역사의 단위를 문명으로 보았다. 그리고 문명을 21개로 구획하고 비교사적으로 그 역사과정의 유형을 밝혀나가는 가운데 단위로서의 문화는 서로 교류한다고 역설하였다.

③ 동시대성(Contemporaneity)의 연구 - 역사 사건은 유일무이하여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을 비슷하게 되풀이 하는 역사의 재발현상(recurrent phenomena)이 있을 수 있다.

④ 문명의 시원은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주장 -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에 대해 인종론, 지형론, 기후론 등의 기존의 학설을 부인하고 인간의 정신력을 문명의 시원에 있어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1개 문명 중에서 선행(先行)문명인 여섯개 문명의 시원을 밝히며 그는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ponce)이라는 해답을 발견했다. 새로운 역사의 창조뿐 아니라 문명의 성장과 성숙이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파한 것에 토인비 학설의 위대성이 있다.

⑤ 문명탄생 이후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은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 - 토인비는 문명발전의 원동력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도전에 응하는 창의적 계층, 즉 창조적 소수에게 있다고 보았다. 지배층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 승화작용을 계속하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창조력을 상실하면 지배적인 소수로 전락하여 자체 분열을 초래케 된다고 하였다.

3. 토인비의 연구를 통해 재고해 볼 일들

토인비의 연구는 가치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더 근본적이고 완전한 지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① 창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민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했지만 때가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던 분이시다. 부패함이 없이 조직과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힘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부단히 가질 때 유지할 수 있다.

② 도전에 응전하는 리더쉽의 문제에 대하여 - 오늘날의 사회를 리더쉽의 사회라고 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요15:1-15)을 본받아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희생하는 리더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와 민족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제 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기다리며

“다음 학기엔
동료 목회자와
함께 오겠습니다.”

김재남(목사, 동광교회)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을 기념하여 지은 성당이 하나 있다. 이 성당은 많은 석공들이 돌을 손으로 다듬어 지은 건물이다. 이 성당이 지어질 때, 한 수도사가 우연히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여기 저기서 돌 다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수도사는 한 석공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여기서 왜 일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석공은 죽지 못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했다. 아! 그렇느냐고 하면서, 수도사는 조금더 안 쪽에서 일하는 한 석공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두번째의 석공은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대답을 했다. 수고가 많으면서, 수도사는 마지막으로 한 석공을 더 만나 보게 되었다. 성당 깊은 곳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한 석공을 발견하고서 그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랬더니 이 석공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다듬은 이 돌들은 오래도록 이 성당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받은 첫 인상은 봉사하시는 서울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에서이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세번째 석공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들이었다. 길에서부터 안 내하시는 분들의 겸손하심과 김밥, 빵, 커피 등을 마련하여 대접하는 분들의 정성들과 찬양을 힘차게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심, 이 모두가 은혜 넘치는 모습들이었다. 왜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에

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부족한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집작컨대 이러한 겸손과 정성과 열심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가르침과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인격의 빛이 열매 맺어놓은 결과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목회자 수강생들을 1시간 가르치기 위해, 물경 20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신다는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자신이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교회에서 일인 몇역을 하면서 쾡쾡대는 목회자들에게 이 목사님이 손수 겪은 당신의 진솔한 간증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이번에 비록 처음 참여한 세미나였기에 조금더 일찍 수강치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주위 동료 목회자들에게 다음 학기의 수업을 적극 권할 작정이다. 잘 차려진 잔치상을 우리만 대하기가 미안해서이기 때문이다.

확신컨대 이 프로그램은 죽지 못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배움마당이 될 것이다.

어서 7학기가 시작되는 새봄이 왔으면 좋겠다.

6학기 종강 현장에서
봉사자들에게 박수를, 짹짹!
하나님께 더 큰 박수를 짹짹!

제 6학기 목회자세미나가 지난 21일에 종강하였다. 등록하신 목회자의 48%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니 제일 수고하신 분들은 수고하신 목회자들이다. 그렇게 모이신 목회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극을 받으셨다고들 하시지만 그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시려고 맘을 훌리신 강사님들의 수고도 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자신의 수고가 한국교회갱신에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으로 봉사한 많은 성도들의 수고가 빛나던 현장이다. 참석한 목회자들로부터 감사의 박수를 아낌없는 받던 봉사자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를, 짹짹!



1. 월요일 새벽, 김밥을 먹는 권사님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2. 관양인도에 앞서
3. 의자 정리, 현수막 설치, 음향 점검, 무엇하나 소홀할 수 없다.
4. 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안팎에서 안내하느라 다리는 아파도 일곱엔 미소만이 가득.
5. 교제와 <순례자>, 주보를 담당하시는 모세선교회의 어른들.
6. 주차안내, 차량관리는 비 오는 날에도.

그리고 이 사진 바깥에 사진 찍는다고 수고하신 집사님, 기도로 후원하신 모든 성도들, 격려를 아끼지 않고 힘을 주신 많은 분들...



교회 발전을 위해--

나도 한마디!

- 교육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급변하는 사회교육의 개혁보다 앞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훈련받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좀 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 찬양대원을 위한 교육이 필요: 음악적 기초, 찬양대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훈련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 우리 교회의 많은 행사들의 특성을 잘 살려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전담하는 간사제도를 두면 어떨까?
- 장애인 교육을 위해 '사랑부'가 개설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회시간을 도울 수 있는 젊은 층의 참여가 절실하다.
- 많은 행사들이 근본적인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

- 아 차별화되지 않은 채 중복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 식당이 없어진 후 각 부서마다 식사문제가 대두되었다. 절제를 위한 것이라면 일련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예산과 같이 소찬이라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떡을 썰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계획은 아주 없는 것인지?
- 새가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지 않은가? 교회 생활을 잘 안내해 주고 점차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 혹은 지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 큰 소리 내기 보다는 묵묵히 교회에 순종하는 것만이 옳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
- 행사 때마다 실질적인 기획이나 진행업무가

- 몇몇 사람에만 의존되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적체적소에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할 듯.
- 전도회의 활동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전도회 구성에서부터 재조정 가능성을 살피고 이름에 걸맞는 전도회, 선교회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락방 운영에 있어 소그룹운동의 특성을 좀 더 활성화 해야 할 듯: 새로운 구성원의 적극적인 흡수,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생활, 교회와의 연결이나 다락방 구성원간의 경조사에 대한 연락체계 점검, 다락방 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 우리교회의 가족 개념은 '전가족'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공휴일에 가족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3주년을 맞으며 /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결단 - ① 교육

‘천국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진 우리교회의 교육은 교회 학교 교육 뿐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도들 생활의 전 영역에서 천국시민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현재 새가족부, 사랑부 등 특수부서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학령별로 구별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1개의 교회 학교가 있다. 특별히 95년

도부터는 장년부가 신설되어 그간 전도회에 의존하던 장년층이 체계를 갖춘 교회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제는 교회 전체를 교육의 관점에서 보고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회 내적인 문제점들 뿐 아니라 교회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와 대응방안도 다각도로 연구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교회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다음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사 모임에서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의 불만을 조사한 것이다.

- ① 성경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11%
- ② 교회 중심의 프로그램만 많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 - 21%
- ③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선생님이나 교역자들이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 11%
- ④ 기도와 찬양에 힘이 없다 - 12%
- ⑤ 불만없다 - 13%

물론 이 경우는 조사 대상이 청소년에 국한된 것이고 우리 교회의 통계가 아니지만 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론은 대부분의 교회 교육이 현실감이 없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설교와 심방을 우선하여 교회 교육의 개발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교회 안의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으로 간주하고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정하였으니 그 목표들에 맞는 세부적인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발전을 꾀해야 한다. 또한 분반공부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시대감각에도 뒤떨어지는 것이다. 시청각 교육이나 현장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적이며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요구된다. 말씀의 능력이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훈련과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위원회의 운영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각 교회학교 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교육에 관해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으며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도 있어야 한다.



공과책보다는 보고 배우는 가운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회학교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교사의 자질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교사기도회, 교사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이 다행이다. 가정이나 학교, 그 외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전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방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간의 개인적인 접촉점을 찾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목적이거나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에 맞게 교육되고 있는지도 재고할 일이다.

3주년을 맞으며 /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결단 - ② 선교

만민에게 복음전파라는 교회의 목표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라는 '94년도 목회지침에 따라 선교위원회는 94년도 초에 조직과 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우선 위원회의 조직을 세분하여 3개국으로 정하였다.

① 국내 선교국 - 집중적인 전도훈련과 비전 2000운동 기간에 전도 주력 부대로 활동할 70인 전도단, 그리고 청소년 선교를 중심으로 한 학원선교부, 농어촌의 전도와 지원을 담당하는 농어촌 전도부를 두고 각각의 부서마다 부장 1명과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② 해외 선교국 - 연례적으로 행하는 김치 신학 세미나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김치 신학 세미나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선교사 지원부를 두어 해외 선교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③ 특수 선교국 - 협의회 기구인 남선교회 협의회, 여전도회 협의회, 실업인 선교회와 군복음화 지원부, 문서 선교부 등을 두었다.

조직과 제도를 세분화함으로써 선교활동 영역에 대한 분업화와 전문화를 기대하였고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일꾼들을 발굴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자기 분야에 대한 선교전략을 개척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94년도 선교위원회의 활동 중에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70인 전도단의 활동으로, 약 90명의 전도단원이 훈련을 받고 심야전도, 노방전도, 병원전도 등 지속적인 전도활동을 하면서 처음 의도했던대로 비전 2000운동과 잘 연계되어 많은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훈련 자체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집중적인 전도 훈련과 개인차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촌전도도 효과를 거두었다. 8월에 충북 청원군에 파송된 전도단원들의 농촌전도활동을 통해 민족복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특별히 설립 3주년을 하여 농촌 미자립 100교회 돕기 운동을 선포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자료 수집과 방문, 선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원선교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하여 성경공부 교재의 개발과 일선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와 양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하기도 했으나 좀 더 철저한 준비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94년도는 계획과 준비의 해로 삼았다.

해외 선교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 목회자 초청 김치 신학 세미나를 5월에 개최하여 영적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귀국 후에도 여러가지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해외선교사 지원부를 통한 선교사 관리도 과거보다는 많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설립 초부터 역점을 두고 행해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것은 년수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선교활동 행을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일꾼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94년도의 경험으로는 잠재된 일꾼이 많다는 것을알 수 있었다. 적절한 훈련과 헌신의 기회를 마련하면 개인의 신앙성장과 더불어 선교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꾼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며 철저한 전도 훈련으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지도자만 그 일과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임은 많이 있는데 기도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고 기도없이 일을 진행함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공허감만 남지 않게 항상 뜨거운 기도를 선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개별적인 참여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참여하는 이들의 열심이 식지 않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고 협조하는 자세로 모두가 열려 있어야 한다.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70인전도대의 심야전도활동



3주년을 맞으며 /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결단 - ③ 다락방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 몸의 지체라고 하신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와 역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무를 받아야 한다. 다락방 활동을 통해 성도 개개인이 내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가정이나 성도 개인, 지역사회의 요구가 교회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수렴된 의견이 교회의 정책이나 목회의 방향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리한 시간 할애나 지나친 프로그램들은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양과 시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다락방 모임이다. 따라서 귀한 기회들을 단순한 친교나 다락방 교재를 읽는 정도의 모임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다락방 모임은 주로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연초에 남자다락방장들의 교육을 별도로 갖고 남자다락방장들을 통한 교구 활성화를 꾀해왔다.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욕구가 다양하고 각자의 삶만으로도 지치기 쉬운 시대에 교회중심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함'이 다락방 모임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단순한 친교가 아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는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삶 속에서 천국을 실현

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별히 새로운 다락방원이 생겼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기들끼리만 너무 친숙한 다락방은 오히려 배타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 때마다 연락체계는 다락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경조사, 입원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락방장은 작은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리더십을 개발하며 양육을 위한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한다.

많은 부분이 안정되어가고 있는 차체에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다락방 활동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활 속의 단상

진리를 위한 순수한 열심을 간구하며

이현숙(집사, 송파 다락방)

“애! 왜 때리니? 때리지 마!” 순간 나도 모르게 아파트 9층에서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몇몇 여학생들이 싸우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욕을 퍼붓고 때리고 밀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질러 그 싸움에 개입하였더니만 때리던 여학생은 나를 향해 거칠게 대들고는 상대방 아이를 한번 더 때리고 힘 돌아 가버렸다. 아이들은 다 가버렸으나 내 흥분은 가라앉지 않고 마음이 상해 눈물까지 났다. 지켜보던 아들은 엄마가 이상하다고 했고,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곧 내 마음 속에 때 맞던 아이와 나를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학교 때 내가 권닝을 했다고 몇몇 남자 아이들이 나를 운동장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몰아 세우고 창피를 주었고 많은 아이들이 창 밖으로 나를 쳐다보던 일이 기억난 것이다. 그때의 아픔과 수치가 되살아났다.

나는 무남독녀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특별했다.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이 없으니 아들 뭉가치 해야한다는 중압감이 있었다. 공부도 잘해야 했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욕심에 컨닝도 했다. 그러한 때 아무도 내 마음의 동기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 나는 거저 나쁜 아이이고 부정직한 아이였고 수치심만 쌓여갔다. 내 스스로의 질책에 지칠만큼 계속해서 내게 화살을 쏘아댔다.

아무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지 않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내 모든 수치와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하셨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 내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만 같아 죄책감에 눌렸다. 금식하며 기도도 하면 며칠 참다가도 터져 나오는 분노의 횡포에 시달리곤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셨다. 응답은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나쁜 열매를 잘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하시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었다. 주님은 나를 다 아시고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 이제는 전처럼 분노의 횡포에 달리지 않는다. 억지로 참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고, 지금도 날마다 조금씩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여 삶의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는 내 마음의 반응을 점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마음의 상처는 언제나 죄와 관련이 있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의뢰하며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비록 내 감정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빈다.

여학생들이 다투는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아직도 아픔과 수치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무릎을 꿇었을 때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3년 전, 우리 교회가 서기까지의 아픔을 나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직히 자문하면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얼마나 연관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그 때 당시의 교회의 아픔을 내 자신의 과거 아픔과 동일시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반문해 본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나의 아픔을 보상하려는 의도와 진리를 위한 열심을 혼동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은 계속 될 것이지만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부터 바뀌어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의의 나무가 되어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아름답게 서 가도록.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7).

3주년을 맞으며 /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결단 - ④ 행사

올해도 우리교회는 많은 행사들을 진행해 왔다. 그 많은 행사들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천국일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구제'라는 목표와 얼마만큼 부합하였는지, 혹 본래의 취지에서 빗겨가서 첫 해에는 열심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던 것에서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자체로만 흐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위에 실현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기도생활과 성경적인 말씀 선포 위에서 일관성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님의 목회를 이루어 가는 데에 필요한 목회지침으로 삼았다. 많은 행사를 통해 객관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주는 교회, 정진하는 교회라는 평을 받아왔고 우리 교회의 행사들이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 이웃 교회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마다 유사한 행사가 거듭되면서 참여의 문제, 일이 분화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가 잘 전달되지 못해서 소기의 목적에 못 미치는 경우의 문제, 행사 때마다 방대한 조직이 오히려 기동성을 약화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한 사후에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4주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철저한 반성과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행사와 일상의 일들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다 성숙하게 대처하는 일이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는 교구의 일들이 일시적으로라도 마비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간사제도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유사한 행사의 통합, 효율성을 감안한 실제적인 조직, 평가회 등은 모든 행사에 있어서 더 이상 미루어두어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유은경(고유윤진 장로 장녀)

11월 10일. 아침 6시 40분 보슬비가 낙엽들과 함께 훑날리는 만추의 계절에 아버지께서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소리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안에 영원히 안기셨습니다.

이발을 하신다고 나가신 아버지께서 15분도 안되어 하얀 홀이불에 싸인 주검으로 변하여 앰블런스에 실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 가족은 가슴이 칼로 저며오는 듯한 슬픔과 앞날에 대한 캄캄한 절망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한 평생이 고생과 우리가족을 부양하는데 따른 과중한 부담감, 피곤함만을 가지고 사시다가 이렇게 되셨구나 하는 죄책감까지 겹쳐서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며칠 전부터 시작한 학생들의 데모와 막내딸보다 어린 제자들의 거짓증언, 스승에 대한 예의없는 방자한 언행들로 인해 말수가 줄어들고 걱정이 많아지고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욱 슬퍼졌습니다.

전날 마을버스에서 만나서 팔짱을 끼고 집에까지 걸어오면서 느껴졌던 그 따스한 온기가 아버지에게서 느껴진 마지막 체온이었다는 것과 다시는 이 세상에서 직접 들을 수 없는 힘에 넘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더욱 더욱 슬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들기 싫었던 잔소리라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두껍고 묵직한 따스한 손을 다시 잡아볼 수 있다면...
토요일에 같이 감을 따자 하시더니...
내년 3월로 예정된 개인전도 못하고...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필 우리 아버지께서...

이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뇌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슬픔, 근심이 짙은 안개가 햇빛에 의해 사라진 후 모두 사물이 확실히 보여지듯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천국가심의 확신과 함께 아버지께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시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감. 부활의 그날에 영화로운 육신으로 부활하여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위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며칠전부터 오빠와 저의 마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지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 이때가 되자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울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의 위로와 사랑이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종윤 목사님과 24시간 빈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주신 장로님, 밤을 세우면서 봉사하여 주신 집사님들, 이름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여 주신 많은 성도님들,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인간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보다는 시기, 질투, 경쟁,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 사회에서 항상 아버지는 피해자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성도님들이 베풀어주신 무한한 사랑을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갚지 못할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승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방송사와 신문에 보도된 잘못된 기사로 인해 혹시나 초신자분들에게 걸림돌이 될까하여 밝히는 것은 아버지는 세상을 향해, 주님을 향해 떳떳하고 청빈한 참 교육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고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글을 마치려 합니다. 비록 새 성전을 짓지 못하시고, 새 성전에 세울 돌성경이 아이디어 스캐치로만 남았지만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영화로운 천국에서,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성전이 아닌 영원히 우리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성전에서,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 아닌 주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주앞에 이르는 그날에 함께 만날 날을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없고 기도소리를 들을 수 없고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를 수 없으나 확실히 알 수 있는 단 한가지는 지금 아버지께서는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나아가서 복된 날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고 찾아주신 이종윤 목사님, 모든 부 목사님, 전도사님, 노구를 이끄시고 참석하여 주신 권사님,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해주신 집사님, 특히 아버지처럼 돌봐주시고 진행시켜주신 장로님들, 모든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인내로 승리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3주년 기념 행사

▶ 농어촌 100교회지원키로

추수감사절과 설립 3주년을 겸하여 맞이하는 뜻깊은 오늘을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전 힘이 약한 농촌의 교회들의 자립을 돕는 「100교회 운동」의 의미있는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총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 100여 개의 농어촌 교회에 결연신청서를 보낸 결과 지금까지 90여 곳의 청원서와 교회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각 전도회별 혹은 다락방이나 개인별로 참여하게 될 농어촌 교회 지원은 오는 1월부터 한다.

▶ 성찬식

추수감사예배와 설립 3주년 감사예배로 드리는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교회의 주인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게 된다.

▶ 떡잔치

오후 4시, 교회 앞뜰에서는 떡잔치를 벌인다. 또한 주일 예배가 마친 후에는 기념품도 증정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수고의 땀을 닦으라는 의미로 수건을 준비했다.

▶ 찬양예배시 집사 안수식과 임직식

찬양예배 시에는 지난 6월 공동의회를 통해 일꾼으로 선출되어 그간

교육과 훈련을 받아온 집사와 권사의 임직식을 거행한다. 임직식에는 임직자와 성도의 서약, 안수 기도, 악수례 등의 순서가 있으며 김영한 목사와 이수종 목사의 권면의 말씀도 있게 된다.

지난 주일 비전 2000운동 승전감사예배와 설립 감사찬양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구노의 <장엄한 예배> 전곡을 연주하였다.



지난 토요일(19일)에는 초등부 찬양대가 비전 2000운동의 일환으로 찬양대 발표회를 열었다. 여러 교회학교들이 찬조출연하여 잔치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교구 지도 교역자 확정

구분	교구	지도	전도사	교구장	행정구역
1 대교구	1	장용휘	김주아	최종시	논현, 신사, 청담, 압구정, 삼성
	2	장용휘	김주아	오정수	역삼, 개나리아파트, 영동아파트
	3	최병호	김주아	정병무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내곡, 세곡
	4	최병호	김주아	김태기	반포, 잠원, 서초, 양재(방배)
	5	김재호	김주아	홍정호	사당, 봉천, 과천, 의왕, 수원, 안양, 시흥, 신림(관악구, 동작구)
	6	김재호	김주아	이영세	영등포, 구로, 광명, 인천, 강서구, 양천, 부천
2 대교구	7	임진태	유순화	김대호	마포, 서대문, 종로, 은평, 벽제, 고양, 일산, 용산, 중구
	8	임진태	유순화		성북, 도봉, 노원, 의정부, 동두천, 북양주
	9	임진태	유순화	윤봉준	동대문, 중랑, 미금, 구리, 남양주, 성동
	10	권상석	유순화	박철훈	강동, 하남
	11	권상석	유순화	노문환	송파(잠실, 풍납, 신천)
	12	권상석	유순화	이남호	성남, 용인, 분당

■ 목회자 동정 ■

원필현 목사가 오늘부로 사임한다. 원 목사는 1991년 11월 24일에 부임하여 만 3년간 우리 교회를 섬겨왔다. 원목사는 오는 1월 초에 유학차 도미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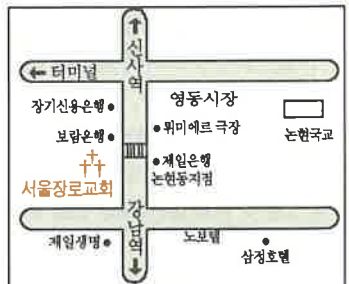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추수감사절과 설립 3주년을 감사하면서
2. 청교도 정신으로 사랑, 섬김,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3. 농어촌 교회들에 새 힘을 주시기를
4. 오늘 임직을 받는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하여